

## 2006 BASF Kids Lab 10월17일부터 개최

한국BASF는 10월17일부터 11월1일까지 울산, 군산, 여수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 <한국BASF 어린이 화학 체험교실(BASF Kids Lab)>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울산공장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로 매년 정기적으로 공장 인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지역사회 어린이에게 화학 실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화학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참여 어린이들이 직원들로 구성된 선생님과 함께 화학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실험 프로그램과 화학 및 과학 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또 당일 실험 후에는 공장직원들과 함께안전모를 착용하고 직접 공장견학을 통해 화학산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6월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4일간 대규모로 실시돼 행사기간 동안행사장을 찾은 약 1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전시관람과 함께 BASF Kids Lab에 무료로 참가한 바 있다.

2006년에도 각 사업장 별로 2회씩 개최할 계획이며, 울산 석유화학공장에서는 10월17일에 북구 메아리 학교의 농아 어린이를 초청해 키즈랩을 진행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애우 초청 키즈랩은 6월 메아리학교의 다용도 조리대, 냉장고 등 식당 급식시설을 BASF에서 지원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시작해 매년 진행해 오던 키즈랩을 메아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4-25일에는 군산 문창 초등학교 4학년(26명)과 5학년(31명) 학생들이 군산공장을 방문해 키즈랩을 진행하게 된다.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2005년에 이어 여수공장 팀이 소호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4학년 학생들 130명을 대상으로 BASF Kids Lab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06년 BASF Kids Lab 프로그램은 유화제의 원리를 알아보는 바디로션 만들기, SAP(Superabsorbent Polymer)를 체험해 보는 사라진 물, 식물에서 색을 추출하는 원래를 배우는 적양배추 시약, 고분자 화합물인 슬라임 만들기,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등 5가지를 기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산공장에서는 단백질 탐구실험을, 여수에서는 PU(Polyurethane) 실험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BASF의 미래비전인 BASF 2015의 4대 전략적 방침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BASF Kids Lab은 참여 어린이들이 소규모 화학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화학원리를 즐겁게 배우도록 고안된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으로 1997년 6월 BASF 본사인 독일 루트빅스하펜에서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6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왔다.

아시아에는 2002년에 소개됐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인디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타이 등지에서 열리면서 현재까지 3만7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0/16>